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 개념에 관한 탐색적 연구: CQR-M 분석을 중심으로

류 소 형

탁 진 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기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고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결과는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에서 2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에서는 '학업성취·취업 역량 증진·다양한 경험 쌓기·만족스러운 취업·원하는 진로 설정·관계형성 능력 증진·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자기 개발·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에서는 '진로개발 지원·직무역량 향상 시스템·대학생활 참여지원·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학습역량 증진 시스템·경제적 지원 확대·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으로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서는 '학습능력·자기효능감·대인관계 유능성·자기인식 및 개선·직무역량·자기조절 능력·풍부한 경험·진로인식·자존감'의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 빈도와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학생성공, 대학생, CQR-M, 탐색적 연구

[†] 교신저자 : 탁진국,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20, tak@kw.ac.kr, 02-940-5424

오늘날의 경제가 점점 더 지식 기반, 기술 기반, 세계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직업 세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chwab, 2016). 전 세계 고용주의 36%가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사용 가능한 기술이 불일치 한다는 것을 지적 하는데(Samans, Zahidi & Keveloh, 2015), 교육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재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을 받은 25~34세 사이의 성인남녀의 비율이 7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OECD, 2019). 그러나 국제경쟁개발연구(IMD)에서 조사(IMD 2020)한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63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5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박성현(2019)은 우리 대학들이 변화된 사회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12년 959만 명에서 2021년 764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통계청, 2021). 또한 취업난과 더불어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에서 2020년 72.5%(간추린 교육통계, 2020)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대학입장에서 변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 대학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이 되지 않으며(최영준, 2013), 대학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신소영, 권성연, 2012). 이러한 현실은 대학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대학성과와 학생 성공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대학성과는 학생 성공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교육의 흐름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0). 이성호 교수는 “학생들의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신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대학들은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연합뉴스, 2021). 교육에서 장기적인 전략은 일련의 추세와 그것이 미래에 진화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OECD, 2019). 또한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할 때 학생들의 요구, 관심 및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학생의 비전은 학생이 원하는 결과로 표현하고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OECD, 2020).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 혁명의 변화 속에서 많은 대학이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국내 대학에서는 ‘학생성공’을 대학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성공에 대한 관심은 학생을 교육의 주요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과 대학이 자생적으로 설정한 주제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박정하, 2020). 학생성공을 추구하는 국내 대학들은 ‘취·창업’, ‘학생목표’, ‘학생역량’, ‘학습역량’, ‘학생만족’, ‘학업능력’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

을 학생성공이라고 잠정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들이 추구하는 학생성공의 목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 대학에서 제시하는 학생성공은 개념적 정의나 도출과정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학생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대학입학과 학위취득이었다(Kinzie, 2012; Venezia, Callan, Finney, Kirst & Usdan, 2005). 오래전부터 학생성공 연구가 진행 되어온 미국의 경우 학생성공의 시작은 중도 탈락 없이 졸업률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학생성공에 관한 선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성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생명과학 교육 분야의 학생성공에 관한 5년간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학생성공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Weatherton & Schussler, 2021)고 하였다. Eubanks(2021)는 학생성공의 평가 연구에서 학생성공의 개념적 정의 없이 대학 과정의 완료, 졸업, 자격시험 합격률, 고용 등과 같은 학습 성과와 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erna와 Thomas(2008)는 대학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중단적 과정에서 교육적 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학생성공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학생성공을 대학졸업에 두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과 행동의 질, 교육의 목적적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학업 성과 달성, 그리고 삶에 대한 준비와 같은 대학에서 중

요한 과정과 결과를 간과할 수 있다(Kinzie, 2012)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생성공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기관에 의해 확립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정량적이라는 것이다(Abrams & Jernigan, 1984). 많은 연구들이 평균 성적이나 시험 점수를 학생성공의 결과로 사용하고 있다(Weatherton & Schussler, 2021). 또한 학생성공을 학위취득, 학성성취, 학업유지 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York, Gibson과 Rankin(2015)은 학업성공 관련 문헌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전 연구들에서 학업성공의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교육학자들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 부모, 직업 시장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학생성공의 정의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존재한다. Harper(2005)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은 "나는 대학에서 성공이 성적이상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학문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성공적인 대학 경력을 정의하는 데 덜 중요했으며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행복과 만족을 성공의 진정한 척도로 보았다. 그러나 교수진은 주로 학문적 용어를 사용해 학문적 성공 유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지위 확보, 졸업 및 대학 경험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생활 상황에 적용하는 것 등으로 성공을 정의하였다(Dean & Camp, 1998).

학생성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생성공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해외 사례에서도 학생성공의 개념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 연구에 불과하였

다. 특히 국내의 학생성과 관련 연구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인식과 관련된 질적연구와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성과 관련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학생의 성공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은 모든 수준의 교육기관 운영에서 수년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Mullin, 2012). 따라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생성과의 개념을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특히 학교와 학생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험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은 맥락적상황과의 관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Dewey, 1938; 권정선, 김희용, 2016에서 재인용). 대학생은 학생성과에 대해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학생활이라는 맥락적상황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론적 관점에서 대학생활의 경험을 통해 인식된 학생성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 도출을 위해 학생성과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Yazedjian, Toews, Sevin & Purswell, 2008; Wirth & Padilla, 2008; Yaworski, Weber & Ibrahim, 2000)를 살펴보면, 학생성과의 의미, 학생성과의 전략, 성공한 학생의 특징, 성공에 필요한 것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이 주로 수행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생성과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성공의 의미와 개인 내적·외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비교적 많은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CQR-M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생성과와 학업성취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행복해 지는 것' 이라고 대답한다. 또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Lyubomirsky, Sheldon과 Schkade(2005)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업무 수행, 건강, 수입, 우정, 심지어 결혼까지 포함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Lyubomirsky 등(2005)은 성공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행복이 성공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과 성공의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성공과 행복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성공은 다양한 요소, 역량, 동기, 성과, 긍정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성공은 삶의 어떤 특정한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된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이 결합된 표현이다(Uusiautti, 2013). 이러한 성공의 특징 때문에 성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전통적으로 학생성과의 개념은 원하는 학습 결과의 성취 및 성공적 학업 목표 달성으로 표현된다(Kuh, Kinzie, Buckley, Bridges & Hayek, 2006). 즉 학업적 성취를 학업성공이라고 보고 있으며, 학업성공을 학생성과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Tinto(1993)는 학점,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을 학생성과이라고 정

의하였다. Bean(1980)은 대학이 자신과 잘 맞는다는 느낌과 긍정적인 교육적 태도 및 경험으로 표시되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및 사회 통합을 학생성공으로 정의하였다.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AAU) 회원들은 대학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업성취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한 대학성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기준인 S4S(Standards for Success)를 개발하였다. 이 표준에 따르면 학생성공은 일반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 입학 수준의 핵심 학업 과정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고 특정 전공분야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Printrich, Conley & Kempler, 2003). 많은 학업성공 연구에서 학생성공을 학업성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Yen과 Liu(2009)는 학생들의 성공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면서 최종 과목 성적만을 사용하여 학업 성과 변수를 측정하였다. 학생성공과 심리적 요인간의 관계 연구(Fong, Davis, Kim, Kim, Marriott & Kim, 2017)에서도 학업적 성공과 대학 지속성을 학생성공이라고 표현하였다.

한국인의 성취의식 탐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49.4%)이며,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실패경험 역시 학업(48.1%)으로 나타났다(박영선, 김의철, 한기혜, 2012). 또한 대학생들은 높은 학점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배상훈, 조성범, 한송이, 곽은주, 2020). 학업성취는 대학생활적응과도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며(Brady-Amoon & Fuertes, 2011), 대학적응의 중요 지표로서 기대목표,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정감과도 연결되어 있다(탁진국, 이창호, 남승규, 1994). 또한 학생들이 학

기 중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향상된 적응도와 행복감을 경험하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박영선, 김의철, 2009). 즉,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삶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한 Yazen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 사회적 통합, 대학환경을 탐색하는 능력을 학생성공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성적이 중요한 이유와 좋은 성적이 정의는 다양했다. 또한 성적과 함께 활발한 사회생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책임감과 독립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Wirth 등(2008)은 학생성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험지식(heuristic or informal knowledge)과 습득지식(formal knowledge)을 도출하였다. 체험지식이란 경험적 지식, 학습 및 학습 기술에 대한 지식, 관계 및 비교 지식, 동기 부여 지식을 의미하며, 습득 지식은 규정된 평균 학점으로 필수 과목수와 학점 시간 등 졸업에 필요한 지식의 양으로 정의된다. 학생과 교수진이 정의하는 학생성공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교수진은 '학문적 성공 유지',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지위 확보', '졸업 및 대학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생활 상황에 적용' 하는 것과 같이 주로 학문적 용어로 학생의 성공을 정의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업측면 보다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행복과 만족'으로 학생성공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Dean & Camp, 1998). 학업성취는 좋은 직업의 간접 예측자이지만 학업성취 자체가 미래의 삶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Arnold, 1995).

학생성공의 지표

학생성공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은 학생 성공의 선행변수들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성공을 측정하는 연구들의 특징은 학생성공을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업성취나 기관 관점의 양적 수치(졸업률, 유지율 등)와 같은 변수들을 학생성공과 동일한 개념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성공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생성공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Kuh 등(2006)은 학생성공과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고 '학업성취도, 교육 목적 활동 참여, 만족도, 원하는 지식 습득, 기술 및 역량 획득, 대학 지속성, 학습 결과 달성, 대학 졸업 후 성과' 등을 학생성공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업성취는 가장 자주 언급되며 전통적인 학생성공의 측정변수이다. 많은 연구들이 학업성공을 학업성취도로 정의하고,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Tinto, 1993). Pascarella와 Terenzini(1980)는 학업 성공을 학생의 학업 및 지적 발달의 척도라고 하였다.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대학 성적(GPA)이다. 성적은 대학에서 인정한 학업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학습과 관련된 많은 요소를 포함한 정량된 측정치이다. 그러나 성적은 대학에서 학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잠재적 척도일 뿐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대학 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Plant, Ericsson, Hill & Asberg, 2005).

학생성공의 다른 변수에는 대학등록, 2학년까지의 지속성, 학위 취득 기간 및 졸업과 같은 정량화 가능한 학생 성취도 지표가 있다

(Venezia et al., 2005). 지속성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 진행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학위 취득이 대학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학생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이 학생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Pritchard와 Wilson(2003)은 학생성공의 지표로 학업성취도와 대학 학위 수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Nora, Cabrera, Hagedorn과 Pascarella(1996)는 대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속성을 학생성공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대학에서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경력성공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은 학생들이 학업 과정을 마친 후 경력 결과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대학 학비가 증가하고 졸업 후 취업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졸업 직후 전공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을 획득하는 것이 대학의 학생 성과에 대한 지표가 되었다(Whiteley, 2016).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업 열망을 추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에 진학한다(Atkins & Ebdon 2014). 학생들은 대학 교육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력을 쌓고,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Heckert & Wallis, 1998). 따라서 학생의 성공에는 수료 후 경력성공이 포함될 수 있다(Kuh et al. 2006). 경력성공의 요소로는 일자리 제안, 고용상태, 직업 성과, 직업 만족도, 조직 몰입 등이 포함된다(Colarelli, 1991). 학생 성공의 척도로서 고용 결과는 대학이 제공할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 교육적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Pace(1979)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자주 진행되지만 학생의 가치 체계,

목표 또는 신념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대학 경험 중에 더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은 교과내용이나 계산보다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통합 지식을 테스트 할 것을 권장했다. 기술 및 역량 습득은 학생 성공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Tinto(1993)는 학생성공을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이라고 하였다.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Gurin, Dey, Hurtado와 Gurin(2002)의 연구에서 학습결과는 능동적 사고 능력, 지적 참여 및 동기 부여, 다양한 학업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참여를 강조한 Astin(1984)에 따르면 학생성공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정도이다. 학생 참여는 심리학의 동기와 유사할 수 있지만 관찰과 측정에 더 민감한 상태의 행동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도가 높은 학생은 공부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자하고,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생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수진 및 다른 학생들과 자주 교류한다(Astin, 1997). 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Galyon, Blondin, Yaw, Nalls와 Williams(2012)는 학생성공의 변수로 수업 토론 참여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York 등(2015)은 참여가 학생성공의 일치된 측면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경험에 해당하고 다른 학생성공 요인의 매개변수라고 제안한다.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AFT)는 빠른 학위 취득이나 높은 시험 점수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학생의 성공에 접근하고 있다. AFT는 일반적으로 학생 자신이 개발 중인 목표성취를 학생 성공으로 정의한다. 학위 취득 측

면에서만 학생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 성공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 목표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학생 목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커리큘럼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피드백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AFT, 2011).

대학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학생성공의 또 다른 측정요소이다(Oja, 2011). 대학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따라서 성공적인 교육 기관은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를 파악하여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Elliott & Shin, 2002).

이밖에 학생성공을 측정하는 데는 심리적 요인들도 포함된다. 학생성공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심리적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대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이다(Galyon et al., 2012). 109개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대학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이 나타났다(Robbins, Lauver, Davis, Langley & Carlstrom, 2004). 또한 자기효능감은 경력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직업 개입 전략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Pajares, 1996). 많은 연구들이 학생성공의 예측인자를 논의하고 있는데 자기효능감은 학생성공의 예측인자일 뿐 아니라 학생성공의 중요한 지표에도 포함이 된다(Rendon, 1995).

학생성공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많은 연구들이 학생성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생성공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학생성공 연구를 위해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성공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학생성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특성을 모두 가진 CQR-M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 CQR-M) 방법을 활용하였다. CQR-M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는 설문지의 개방형 질문에 가능한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의 성실한 답변이 자료 활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을 성실히 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학생의 성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학업성취이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은 학업성취이며, 학업성취는 대학생활적응도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박영신 등, 2012; Brady-Amoon & Fuertes, 2011). 또한 학생성공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학업성취를 학생성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Kuh et al., 2006), Yaworski 등(2000)은 대학생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질적연구에서 SAT(Scholastic Aptitude Test)를 기준으로 학생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의 학업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있다고 가정되며 자신만의 노력을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실한 대학생활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첫째, 수도권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으로, 둘째, 대학생활을 1학기 이상 경험했으며, 셋째, 대학 졸업자의 경우 졸업 1년 이내이며, 넷째, 성적이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으로 하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총 101명의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작성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중 2명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연구 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세~31세이며 남성 43명(43.4%), 여성 56명(56.6%)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별로는 일반대학 61명(61.6%), 전문대학 38명(38.4%)이며, 학년별로 일반대학의 경우 1학년 8명(8.1%), 2학년 12명(12.1%), 3학년 19명(19.2%), 4학년 11명(11.1%), 졸업생 11명(11.1%)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2학년 17명(17.2%), 3학년 10명(10.1%), 전공심화 5명

(5.1%), 졸업생 6명(6.1%)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를 전공별로 구분해보면 인문계열 5명(5.1%), 사회계열 33명(34.4%), 자연계열 8명(8.1%), 공학계열 28명(25.3%), 교육계열 6명(6.1%), 의학계열 7명(7.1%), 예술계열 12명(12%)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CQR-M의 자료 수집은 간단한 개방형 설문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필요한 질문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하였다.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성공에 대한 인식’, ‘대학에서 중요한 요소’, ‘학생성공의 전략’, ‘성공에 필요한 요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의 영역을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하고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질문의 적절성을 위해, 질적연구 지도 경험이 있는 교수 1인, 질적연구를 학술지에 게재하였고 질적연구 수업을 경험한 심리학 전공 박사 및 박사 과정 3명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이 대학생에게 이해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대학생 5인에게 응답하도록 하고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피드백을 받고 질문을 다시 한번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최종 6개의 질문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자료 수집은 다수의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용이성을 고려한 온라인 설문지로 제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의 수정본인 CQR-M(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는데(Hill, 2016), CQR은 팀원들 간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CQR-M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편

표 1. 자료 수집을 위한 영역별 질문

영역	질문
학생성공의 의미	대학을 다니는 동안 어떤 것들을 이뤄 나가고 있을 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는가? 주변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학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 학교의 지원은 무엇인가? 자신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제도를 만든다면 무엇을 만들어 주겠는가?
학생성공을 돕는 심리적 요인	나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 나의 장점은? 나의 어떤 부분을 더 키운다면(개발하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되겠는가?

견을 최소화 하고 원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한 영역과 주제 영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CQR 연구방법을 따른다. 또한 50~100명 정도의 큰 표본과 간략한 형태의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CQR과 차이가 있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Hill, 2016). CQR-M은 합의적 요소에 발견 지향적이고 탐구적인 접근법이 결합된 방법이다. 따라서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생각을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적합하다(Hill, 1990). CQR-M은 비교적 간략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자들 간 합의를 이루기가 쉽고 자료의 분석과 코딩과정에서 감수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Spangler, Liu & Hill, 2012)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들이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는 성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질적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두껍고 풍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모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CQR-M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팀 감수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모두 연구자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분석에 참여한 4명 모두 질적연구 경험과 질적연구 수업 및 워크숍을 이수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3명은 질적연구로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박사 1명과 박사수료자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CQR-M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이다. CQR-M은 별도의 감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Spangler et al., 2012) 하였지만 분석과 코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 지도 경험이 다수 있는 교수 1인이 감수를 하였다.

영역과 범주구성

CQR-M의 분석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역 정하기 ② 자료의 내용들을 영역별로 정리하기 ③ 응답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기 ④ 중복된 진술이나 사례를 하나로 정하기 ⑤ 사례들 간 유사한 핵심 내용들끼리 묶어 범주화하기로 진행된다. 먼저 분석 팀은 연구문제와 질문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각자 분석하면서 영역을 구분하고 분석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3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분석자들은 각자 자료의 내용들을 3개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자신들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자 분류한 영역을 다른 분석자들의 분류와 비교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각자가 정리·수정한 영역별 자료 내용을 합의하고 응답으로부터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였다. 핵심 내용을 요약할 때 응답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고 주관적 판단은 배제하며 원 자료가 가진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약하였다. 요약된 핵심 내용에서 중복된 내용은 합의를 통해 하나로 정리하였다. 분석자들은 각자 사례들 간 유사한 핵심개념들을 묶는 작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이 범주화한 내용과 다른 분석자의 내용을 비교하며 수정작업을 거쳤다. 이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유사한 사례들을 범주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범주들 간 의미가 차별적이 되고, 자료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역과 범주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석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논의하고 영역과 범주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딩 및 빈도표시

최종적으로 도출한 영역과 범주에 응답을 코딩하였다. 응답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모호하거나, 범주에 적합한지 등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자간 최종 합의된 코딩은 영역, 범주, 사례 내용으로 분류 정리하여 감수자의 검토를 거쳤다. 응답을 범주에 코딩하는 기준은, 각 영역별 여러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은 각 범주에 모두 코딩하였으며, 한 범주에서 중복되는 응답은 하나로 코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3개 영역과 25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범주별 빈도수와 빈도율을 표시하였다. 빈도율은 각 범주별 반응수를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결 과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99명의 대학생 참여자가 작성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25개 범주가 개발되었다. 대학생의 학생성공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이 분류되었다. 영역별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은 표에 정리하였다. CQR-M 연구자들은 분석된 모든 자료를 보고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주에 대해 제시 할 것을 추천한다(Hill, 2016).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범주 간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전체 범주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생성공의 의미

첫 번째 영역으로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는 95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로는 ‘학업성취(45.3%)’, ‘취업 역량 증진(43.2%)’, ‘다양한 경험 쌓기(41.1%)’가 40%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고, ‘만족스러운 취업(37.9%)’, ‘원하는 진로 설정(33.7%)’, ‘관계형성 능력 증진(32.6%)’,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30.5%)’의 4개 범주는 3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27.4%)’, ‘만족스러운 대학생활(17.9%)’이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범주는 ‘학업성취’로 많은 학생들이 ‘학점 잘 받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정한 성적의 목표에 도달하고, 전공지식을 풍부하게 쌓으며,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것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밤새 공부해 보는 경험(참여자 35)과, 학문적 소양을 쌓는 것(참여자 10) 등을 학생으로서 성공이라고 표현하였다.

‘취업 역량 증진’ 범주에서 학생들은 대학생활 기간을 졸업 후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커리어를 만들어가며,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성을 만들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모전 입상이나, 외국어 점수 취득 등을 포함하여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신이 가진 개성과

표 2. 학생성공의 의미

영역	범주(9)	빈도(%)	내 용
학생 성공의 의미	학업성취	43 (45.3)	내가 정한 성적의 목표치 달성하기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을 풍부하게 갖기 높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기 대학 성적을 좋게 받아 전문지식을 확실히 습득하고 졸업하기
	취업 역량 증진	41 (43.2)	진로를 계획하고 관련 커리어 갖추기 원하는 직업이나 꿈을 향해 도달할 수 있는 상태 만들기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업적과 커리어와 관련된 결과물을 쌓아 나가기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에서 필요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하기
	다양한 경험 쌓기	39 (41.1)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심 분야를 주체적으로 찾아 경험 쌓기 학교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 해보고 다른 관점에 대한 생각 을 얻기 자랑스럽거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험 갖기
	만족스러운 취업	36 (37.9)	좋아하는 일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취업을 성공하기 원하는 분야에 취업을 해서 남들보다 빠른 사회경험 얻기 전공을 바탕으로 사회생활 하기
	원하는 진로 설정	32 (33.7)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기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진로를 정하고 준비하기 나의 목표나 원하는 일을 찾고,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알기
	관계 형성 능력 증진	31 (32.6)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교수님과 친해지기 살아가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 형성하기 선배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고 후배들에게 같은 도움주기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29 (30.5)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시도 해보기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기 대학기간동안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보내기
	자기 개발	26 (27.4)	자아성찰을 하고 나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이상적인 삶을 고민해보고 구체화하기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17 (17.9)	대학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 없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 놀이·공부하기 등 모두 열심히 하는 맛있는 대학 생활하기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95명 294반응		

전문성 있는 지식을 쌓아 취업 기반 마련(참여자 38)을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범주인 '다양한 경험 쌓기'에서는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교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찾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대학 생활을 돌아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야 하고(참여자 68), 대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임원 역할, 교환 학생, 아르바이트, 여행과 같은 다양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미래의 직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족스러운 취업'으로 도출된 범주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취업에 성공하고, 전공과 관련되고 원하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참여자 33)을 학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족스러운 취업이라는 의미에는 자신이 원하는 분야, 전공과 관련된, 남들보다 빠른, 안정적인, 높은 연봉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하는 진로 설정'의 범주에 포함된 응답에서 학생들은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싶어 하며,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알고 그것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표현되었다. 응답자들은 원하는 진로를 찾아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학생으로서 성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참여자 36), 전공이 자신과 잘 맞는지 알게 되는 것(참여자 65)만으로도 학창 시절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고 하였다.

다음으로 분류된 '관계형성 능력 증진' 범주에는 대학 기간 동안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교수님과 친분을 쌓아가는 것 등을 기술하였다. 또한 살아가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넓은 인맥을 만들고, 선배에게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후배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것(참여자 61)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봄으로써 사고가 확장되며, 대인 관계에 대한 대처법이 키워진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범주에는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시도를 해보고,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참가자 24)을 학생성공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대학 시절 각자 자신이 정한 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꿈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며, 노력을 하는 과정자체를 학생성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 개발' 범주에는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높이는 것(참여자 39),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기, 이상적인 삶을 고민해 보고 구체화하기 등의 응답을 하였다.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범주에는 대학생활을 돌아볼 때 후회 없고 유익한 시간되기(참여자 47)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응답을 비롯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모두 열심히 하기, 친구들과 추억 만들고 연애하기 등의 구체적인 응답이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33.7%)이 30%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대학생활 참여지원(31.6%)',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25.5%)',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23.5%)'의 3개 범주가 2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18.4%)'와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4.1%)'이 분석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으로 98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은 표 3과 같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진로개발 지원(37.8%)',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표 3.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영역	범주(7)	빈도(%)	내용
학생 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진로개발 지원	37 (37.8)	학생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교수님 지도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움 성공적인 취업을 이룬 선배들과의 상담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33 (33.7)	캡스톤 프로젝트를 회사와 연계하여 인턴과 병행 기업·정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직업에 관한 자세한 실무와 정보를 접할 기회 확대
	대학 생활 참여 지원	31 (31.6)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안내와 적극적 홍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학생 개인의 목표를 돕는 맞춤형 지원 전공 외 분야의 인턴십과 같은 다양한 경험제공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25 (25.5)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 마련 선배배간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교수님과의 편한 의사소통 기회 확대 타 학과 타 대학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23 (23.5)	과제가 실제 공부에 도움 되도록 평가방식 개선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양방향 평가 시스템 어학을 배운 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경제적 지원 확대	18 (18.4)	성적평가 방식이 아닌 다양한 장학제도 저소득 학생의 근로 지원 노트북과 같은 학습 기자재 지원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	4 (4.1)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 확충 행정처리 간편화 시스템 도입
	98명 171반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진로개발 지원’에서 학생들은 학생 개인의 원하는 목표를 돕는 프로그램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취업을 이룬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참여자 21) 등을 기술하였다.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범주에는 기업 및 정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캡스톤 수업이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과 병행되어야 하며, 직업에 관한 자세한 실무와 정보를 접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참여자 56)등을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는 ‘대학생활 참여지원’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확실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참여자 40)이 학생성공을 돕는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공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의 범주에는 학생들 간 의사소통 기회의 장, 선후배가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수님과의 편만한 의사소통 기회 확대 등의 응답을 하였다. 또한 타 대학·타 학과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는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참여자 20).

다음으로 학생성공을 돕는 범주는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으로 나타났다. 과제가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평가 방식의 개선,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생 양방향 평가 시스템(참여자 24), 어학을 배운 후 유지

가 될 수 있는 제도 등을 중요 환경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경제적 지원 확대’ 범주에는 성적 평가 방식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장학 제도와 저소득 학생을 위한 근로 지원, 학습 기자재 지원 등의 응답이 제출되었다. 마지막 범주로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이 도출되었다.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세 번째 영역은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96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별 빈도율과 내용은 표 4와 같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범주는 ‘학습능력(59.4%)’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31.3%)’, ‘대인관계 유능성(30.2%)’이 3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자기인식 및 개선(25%)’, ‘직무역량(21.9%)’이 20%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고, ‘자기조절 능력(17.7%)’, ‘풍부한 경험(14.6%)’, ‘진로인식(10.4%)’의 3개 범주가 1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9.4%)’이 도출되었다.

가장 높은 빈도(59.4%)를 보인 ‘학습능력’ 범주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습득하기, 외국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등의 응답이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충실히 해야 한다(참여자 72)는 응답이 있었다.

30%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 범주는 2개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자기효능감’의 범주에는 자신감, 해보고 싶은 일 시작하기,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믿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용기(참가자 65) 등의 답변이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범주에는 사교성,

원만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참여하기(참여자 62) 등의 답변이 제시되
하기 등의 응답이 있었으며, 선배들과의 모임
었다.

표 4.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영역	범주(9)	빈도(%)	내 용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학습 능력	57 (59.4)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의 완전한 습득 의사소통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능력 독서능력 어휘력 등 탄탄한 기초학력
	자기효능감	30 (31.3)	자신감 해보고 싶은 일 시작하기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과 믿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용기
	대인관계 유능성	29 (30.2)	사교성 원만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 형성
	자기인식 및 개선	24 (25)	나 자신을 바로 알기 자신에 대한 이해 능동적 자기개발 자세 책임감/계획력/실행력/판단력 건강한 신체와 긍정 마인드
	직무 역량	21 (21.9)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 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자기조절 능력	17 (17.7)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습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
	풍부한 경험	14 (14.6)	교내 많은 활동 참여 전공 외의 다양한 경험 각종 대회 참가
	진로인식	10 (10.4)	내가 원하는 꿈 찾기 다양한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전략 전공분야 정확히 파악
	자존감	9 (9.4)	자존감 키우기
96명 211반응			

2개의 범주가 20% 이상의 빈도율을 보였는데 ‘자기인식 및 개선’의 범주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항목들이 제출되었다. 나 자신을 바로 알기(참가자 40), 자신에 대한 이해, 능동적 자기개발 자세, 책임감/계획력/실행력/판단력 등이 보고되었다. 다음은 ‘직무역량의 범주’로,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 나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이 보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하는 스펙 쌓기(참여자 29)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 미만의 낮은 범주율을 보인 범주로 ‘자기조절 능력’의 범주에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나가는 습관, 감정 조절,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 등의 응답이 나왔다. ‘풍부한 경험’의 범주에는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 전공 이외의 다양한 경험, 각종 대회, 아르바이트 등의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성공에 도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인식’ 범주에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고 전략을 만들며, 전공분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응답이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경우 자존감 키우기와 같이 모든 응답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대학별 각 영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범주는 ‘학업성취(50.8%)’이며,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취업역량 증진(64.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율을 차지한 범주는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경험(45.9%)’, ‘원하는 진로 설정(36.1%)’, ‘만족스러운 취업(36.1%)’이었으며, 전문대학은 ‘만족스런 취업(41.2%)’, ‘학업성취(35.3%)’, ‘나만의 목표 설정

과 달성(35.2%)’이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생성공을 돕는 대학 환경 요인’의 경우 일반대학 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주는 ‘진로개발 지원(36.7%)’, ‘대학 생활 참여 지원(33.3%)’,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30%)’이며,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48.6%)’, ‘진로개발 지원(39.5%)’, ‘대학 생활 참여 지원(28.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영역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서 ‘학습능력’은 일반대학(60.3%)과 전문대학 학생(57.9%)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은 일반대학 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유능성(36.2%)’, ‘자기효능감(27.6%)’이었으며,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36.8%)’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와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해 학생성공과 관련한 경험 및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을 진행하고 9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CQR-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환경적 요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 등 3개의 영역에서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각 영역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영역별로 도출된 공통 범주의 특징을 기술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의 의미'에는 '학업성취', '취업 역량 증진', '다양한 경험 쌓기', '만족스러운 취업', '원하는 진로 설정', '관계형성 능력 증진',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자기 개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등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요인'에는 '진로개발 지원',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대학생활 참여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경제적 지원 확대', '학생 편의를 위한 환경'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는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유능성', '자기인식 및 개선', '직무역량', '자기조절 능력', '풍부한 경험', '진로인식', '자존감' 등 9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별로 도출된 각 영역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대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는 '학업성취'로 40% 이상의 빈도율을 나타내 높은 중요도를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학습결과 및 성취는 학생성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Eubanks, 2021; Perna & Thomas, 2008; Tinto, 1993; Bean, 1980; Kuh et al., 2006).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학생성공이며, 학업 목표를 향해 나아가 만족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모두 대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취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이었다(박영신 등, 2012)는 면에서도 학업성취는 학생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에서

도 학업성취가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가장 중요한 학생성공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0% 이상의 높은 빈도율을 보인 범주는 '취업 역량 증진'이며, '만족스러운 취업'이 38%의 빈도율을 보였다. '만족스러운 취업'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대학과정이 아닌 대학을 졸업한 후 결과물이다. 자료 수집 시 '대학 생활 동안'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제시 하였으나, 취업이 높은 빈도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취업이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0.1%(통계청, 2021)로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 시기 조사에 따르면 대학입학 하자마자(41.5%)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Break News, 2009). 대학생에게 취업 및 취업을 위한 역량 키우기가 학생성공의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데는 어려운 취업 현실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범주는 '다양한 경험 쌓기(40%)'이다. 대학생의 학창경험이 취업 및 연봉을 기준으로 한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박도형, 2020). 또한 프로젝트학습은 대학생의 중재, 타문화 이해 및 수용 능력, 의사소통 역량, 종합적 사고력, 학습 몰입에 효과가 있었다(홍효정, 2020). 이외에도 다양한 인종이나,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 활동과, 타인의 관점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높이며,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Gurin et al., 2002; Parker & Pascarella, 2013). 본 연구결과는 다양성의 경험이 학습 성과를 높이며, 대학성과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정운, 이병식, 2009; Kuh et al., 2006)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진로 설정(33.7%)’은 다섯 번째 범주로 도출되었다.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나 취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것이 학교생활 적응과도 관련이 높다(김성경, 2003).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입시 특성상 대학 진학 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현실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도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는 것은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할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는 것은 학생성공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학생성공의 의미는 ‘관계 형성 능력 증진(32.6%)’으로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형성을 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의 동기, 후배, 동아리 회원, 자신들의 학교에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 뿐 아니라 타 학교의 학생들과도 관계 형성을 원한다고 하였다. 대학 시기는 환경과 인간관계의 변화가 큰 시기이다(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사회유대감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며 사회유대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인관계문제가 영향을 미친다(이수진, 2009).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학생들의 심리적 웰빙과 긍정적 관련을 가지며(손술, 서경현, 2014), 주관적 안녕감과 자기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정은이, 2011).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대학 시기에 대인관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Roberts, Kassel & Gotlib, 1995)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에게 관계 형성 능력 증진이 학생성공으로서 중요함을 뒷

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난 범주는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30.5%)’이다. 목표란 개인이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행을 더 잘한다(Locke, 1996). 개인은 자신의 흥미, 필요, 가치 등을 반영한 목표가 만들어 졌을 때 그 목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목표추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Sheldon & Elliot, 1999). 다섯 번째 범주인 ‘원하는 진로 설정’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를 잡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범주는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응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응답자들은 단지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을 학생의 성공으로 보지 않고 목표 설정, 노력의 과정, 원하는 결과로 연결되는 과정을 하나의 맥락으로, 목표 성취에 대한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노력이나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며,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달목표(Elliot & Thrash, 2001)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자기 개발(27.4%)’ 범주에서 응답자들은 ‘자아성찰’, ‘인성’, ‘성장’, ‘자신의 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어떤 목표 달성의 의미가 아닌 인간이 가진 성장욕구 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학생들은 대학생이라는 학생 신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대학생으로서의 성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는 ‘만족스러운 대

학생활(17.9%)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만족은 '유익한 시간', '놀기와 공부 모두 열심', '친구들과 추억', '연애' 등 공부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생성공이라고 하였다. 학업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가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한다(Krumrei-Mancuso, Newton, Kim & Wilcox, 2013). 학생성공에 관한 질적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행복과 만족을 학생 성공의 진정한 척도로 보았으며, 학업성취는 성공적인 대학 경력을 정의하는 데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an & Camp, 1998).

두 번째 연구 문제는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인'으로 가장 높은 범주율을 보인 것은 '진로개발 지원(37.8%)'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입학한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진로 관련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류진혜, 이대형, 2004;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5).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진로의사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느낀다(Saka, Gati & Kelly, 2008).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은 이러한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진로개발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범주는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33.7%)'이었다. Tinto(1993)는 학생성공을 경력 향상 또는 새로운 기술의 성취와 같은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표 달성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갖게 될 직업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대학에서 채워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학생

들이 원하는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은 이론적인 수업내용을 넘어서 현장에서의 업무와 병행되는 방식의 프로그램들, 실제 직업을 체험해 보는 기회 등이었다. 우리 대학들이 변화된 사회와 산업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박성현(2019)의 연구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 해 준다.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미래 직업세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은 현장에 직접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 지원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범주는 '대학 생활 참여 지원(31.6%)'이다. '참여'는 개인이 어떤 활동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Christenson, Reschly & Wylie, 2012). 학생 참여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험적으로 나타난 요소 중 하나로서 학생의 성적, 끈기, 연구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uh et al., 2006). 또한 학생들이 교수진과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경험에 참여시키고, 교실에서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을 강조하고, 학생과 상호 작용하고,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 도전하도록 하는 대학에서 더 높은 수준의 참여와 학습을 보고한다(Umbach & Wawrzynski, 2005). 따라서 학생의 성공을 위해 대학은 교수진 및 학과 동료들과의 목적적인 상호작용, 지역 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Wood & Breyer, 2017).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는 학교 프로그램의 안내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많다는 의미이다. 대학은 학생의 니즈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학생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25.5%)’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졸업 한 선배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배들에게는 자신들의 길을 먼저 가본 경험을 들음으로써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Kuh(1993)는 학생들이 친구를 선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학에서 하는 일과 경험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중요하며, 동료와의 상호 작용은 전반적인 학업 개발, 지식 습득, 분석 및 문제 해결 기술,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료와의 관계 뿐 아니라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도 학생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naya와 Cole(2001)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의 상호 작용은 학생의 학업자아 개념을 개발하고 동기 부여와 성취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유머 감각이 있고, 상호 작용적이며, 정직하게 학생들을 격려한 교수진은 학생과 교수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학생들이 교직원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은 그 관계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은 교수진과의 상호 작용이 대학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학생과 기관간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수님들과도 가깝게 지내며, 진로 뿐 아니라 다양한 고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원했다. 교수님을 단순히 학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섯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23.5%)’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은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평가 방식으로의 개선, 교수의 역량 증진 등 기존의 학습 방식을 탈피해 학생 스스로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방식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출된 ‘경제적 지원 확대(18.4%)’에서는 성적평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장학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학금이 우수 학업성취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학업 이외 성과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성공이 학업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가장 높은 범주율을 보인 것은 ‘학습 능력(59.4%)’이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학습능력은 전공 공부나 학점 관리였으며, 다음으로 어학능력과 기초학력 향상이었다. 많은 연구가 학업성취를 학생성공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Kuh et al., 2006; Pintrich et al., 2003; Yen & Liu,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업이 가장 중요한 성공 경험이라는(박영선 등, 2012) 이전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능력을 키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자기효능감(31.3%)’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나 신념을 의미하며, 실제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는 중요하다(Bandura, 1986).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고, 스스로 높은 교육 및 직업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대학생화에 성

공적으로 적응한다(Tinto, 1993). 따라서 학생 성공을 이루는데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대인관계 유능성(30.2%)'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pitzberg & Cupach, 1989; 동기과학, 2019에서 재인용). 소속감은 인간의 핵심동기이며 소속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녕감이 높다(Deci, Ryan, Gagné, Leone, Usunov & Kornazheva, 2001). 이 의미는 소속감 즉, 관계성을 높이는 것은 대학 생활 만족감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성공의 요소이다(Kuh, 1993). 본 연구는 학생과 교수진 간의 비공식적 상호 작용과 긍정적인 관계가 대학생의 태도, 관심 및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목표를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Pascarella & Terenzini, 2005)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네 번째 도출된 범주는 '자기인식 및 개선(25%)'이다. '자기개선(self-improvement)'은 자신의 능력, 특질, 안녕감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Sedikides & Hepper, 2009).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유능해지기를 바란다. 자기개선의 동기는 학교뿐 아니라 직업, 취미 개인적 관계를 포함해 삶의 전반에서 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학생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대학 생활에서 부여되는 과제, 활동의 경험, 자신이 가진 목표 등은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킨다. 지적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은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Boulter, 2002), 동기와 자기인식이 학생 참여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Fong et al., 2017).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자기인식 및 개선'이 학생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도출된 범주는 '직무역량(21.9%)'이다. 연구문제 1, 2에서 도출된 '취업 역량 증진'과 '직무 역량 향상 시스템'과 함께 취업을 위해 응답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과 관련된 범주이다.

여섯 번째로 도출된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의 범주는 '자기조절 능력(17.7%)'이다. 자기조절력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며 학업성취가 높고 신체적·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참여자들은 의지, 조절, 인내 등의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기조절은 의지력과 같은 개념으로 목표추구를 위해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뤄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은 학생성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낮은 빈도율을 보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 '풍부한 경험(14.6%)', '진로인식(10.4%)', '자존감(9.4%)'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교내 뿐 아니라 교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인식과 관련해 참여자들은 단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만이 아닌 진로계획을 짤 수 있는 능력, 전공에 대한 진로 정보 등 진로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을 모두 표집 하였다. 각 대학 별로 높은 빈도율을 보인 범주는 일반대학 학생은 ‘학업 성취’, ‘다양한 경험 쌓기’, ‘원하는 진로 설정’, ‘만족스러운 취업’이, 전문대학 학생의 경우는 ‘취업 역량 증진’, ‘만족스러운 취업’, ‘학업성취’,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이 도출되었다. 두 대학 모두 학업과 취업 관련된 범주가 공통으로 높은 빈도율을 차지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과 어려운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대학의 학생들은 ‘학업성취’와 ‘다양한 경험 쌓기’에서,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취업 역량 증진’과 ‘만족스러운 취업’에서 높은 빈도율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문중심과 취업중심이라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관련 응답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일반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자격증 취득’ 취득을 많이 기술 하였다. 자격증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일반대학 학생은 전문대학에 비해 긴 시간 학생 신분을 누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진출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면, 전문대학은 단기간에 교육을 받고 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증과 같은 자격 취득이 취업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학생성공을 돕는 대학 환경 요인’으로 일반대학 학생들은 ‘진로 개발 지원’, ‘대학 생활 참여 지원’,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학생들은 ‘직무역량 향상 시스템’과 ‘진로개발 지원’이 높은 빈도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진로

를 계획하지 않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진로 개발을 도와주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두 대학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은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 번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학습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역량은 두 대학의 학생들 모두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두 대학의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 학생들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 범주는 두 번째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형성으로 얻어지는 여러 이점과 함께 COVID 19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에 따른 각 영역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일반 대학 학생들은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증진과 자기인식 및 개선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기회를 통한 관계형성 능력 증진과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서 원하는 진로를 설정하고 학업성취와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을 학생 성공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은 학습능력, 자기효능감 증진과 자기인식 및 개선과 함께 취업 역량 증진과 학업 성취를 통해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모든 영역마다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별로 도출된 공통 범주를 통합해 4개의 학생성공 개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학업과 관련된 범주들이 공통으로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영역의 '학업성취', 두 번째 영역의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 세 번째 영역의 '학습능력'이다. 또한 '학생성공에 필요한 심리적 요인'에 학업성취를 답한 응답자의 빈도는 50%를 넘지만,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소로 '학습역량 증진 시스템(23.5%)'은 비교적 낮은 범주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학습능력'은 외부의 도움보다 스스로 키워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첫 번째 개념은 '대학 생활 동안 전공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의 학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신의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로 진로와 관련된 범주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대학 학위 취득은 경제적 번영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경로이며 대학 졸업자는 더 높은 수입을 얻는다(OECD 2020). 첫 번째 영역에서 대학과정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취업'이 도출되었다. 또한 첫 번째 영역의 '취업 역량 증진', 두 번째 영역의 '직무 역량 향상 시스템', 세 번째 영역의 '직무역량은 모두 '만족스러운 취업'을 위해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들과 관련된 범주들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취업'을 위한 선행요소로 해석되는 첫 번째 영역의 '원하는 진로 설정', 두 번째 영역의 '진로개발 지원', 세 번째 영역의 '진로인식'이다. 특히 '진로개발 지원'은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 요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스스

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두 번째 개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직무 역량과 자기개발을 증진하여 만족스러운 취업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통으로 도출된 범주들은 경험 및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범주들이다. 또래 상호작용, 업무 경험, 의미 있는 리더십 활동과 같은 교육 목적이 있는 교실 밖 경험은 긍정적인 사회적 자부심, 자신감 및 자기 개발의 여러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Kuh,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첫 번째 영역의 '다양한 경험 쌓기', 두 번째 영역의 '대학 생활 참여 지원', 세 번째 영역의 '풍부한 경험'은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경험을 강조한 범주들이다. 따라서 학생성공의 세 번째 개념은 '교내에서 제공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과 관련된 범주들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의 '관계 형성 능력 키우기', 두 번째 영역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세 번째 영역의 '대인관계 유능성' 범주들이다. 학생들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직업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된다(Hirschy, Bremer & Castellano, 2011). 따라서 네 번째 학생성공의 개념은 '관계 형성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질적연구 방법으로 학생성공의 개념을 도출한 연구(Yazen et. al., 2008; Wirth et. al., 2008; Dean & Camp, 1998)에 의하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 사회적 통합, 대학환경 탐색 능력, 사회

생활 사이의 균형, 책임감과 독립성, 학습 및 학습 기술에 대한 지식, 관계 및 비교 지식, 동기 부여 지식, 행복과 만족 등으로 학생성공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학생들의 경우 취업역량 증진, 만족스러운 취업, 원하는 진로 설정 등 취업과 관련된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만의 목표 설정과 달성, 자기개발과 같은 자신만의 목표 달성을 학생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 자기인식 및 개선, 자기조절 능력 등 심리적 측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이 해외 학생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의미',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인',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을 도출하고 학생성공의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학생성공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해외의 경우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학생성공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성공의 의미로 9개 범주가 도출되었고,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환경 요인에 7개 범주, 학생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인에 9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선행연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학생성공의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생성공에 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성공의 의미뿐만 아니라 학생성공을 도울 수 있는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도출하여 개인 내적·외적 요인으로 구체화 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학생성공의 의미와 환경적·심리적 영역을 통합해 학생성공의 의미를 개념화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성공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학생성공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성공을 돕는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자신들이 갖춰 나가야할 심리적 요인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학생 스스로 개발해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목표를 돕는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개인 맞춤형 코칭을 활성화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며, 대학이 학생성공의 개념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산을 저조, 수도권 중심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 많은 국내 대학들이 학생성공을 목표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성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없이 학교 차원에서 학생성공을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학생성공의 개념적 정의 없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성공의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성공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성공의 지원방향을 세우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학생성공을 위한 대학 환경요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해외의 많은 대학이 코칭 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성공을 돕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내 대학에서도 학생성공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가 학생성공을 돕는 코칭 체제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구대상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를 표집 하였다. 학생성공의 개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특정 집단에 활용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진행되는 학생성공 연구는 대학종류, 성별, 전공, 학년 등에 있어서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학생성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등 해외 연구와 차별화 된 국내 학생성공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정선, 김희용 (2016). 듀이 지식론의 재고찰. *교육철학연구*, 38(2), 1-27.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박정하 (2020). 학생성공과 교양교육. *대학지성 IN & OUT*.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2> 에서 2020.08.24 자료 얻음.

류진혜, 이대형 (2004). 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학생활연구*, 22.

박성현 (2019). 추락하는 대학교육 경쟁력,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00> 에서 2019.10.08 자료 얻음.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12). 한국인의 성취의식 탐구. *교육학연구*, 50, 51-89.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399-429.

배상훈, 조성범, 한송이, & 곽은주 (2020).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학생 인식. *열린교육연구*, 28, 319-346.

Break News (2009). 취업준비시기, 대학입학자마자 41.5%. breaknews.com/sub_read.html?uid=114870 에서 2009.11.23 자료 얻음.

이혜정, 임상훈, 강수민 (2019). 4 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안 탐색: 미래 르바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2), 59-84.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5). 2015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https://snucounsel.snu.ac.kr/board/boardDataView.do> 에서 2016.06.09 자료 얻음.

신소영, 권성연 (2012). 대학교육 중요도-만족

- 도 분석 및 교육만족도 제고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45, 55-85.
- 손술, 서경현 (2014).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619-639.
- 연합뉴스 (2021.4.13.). 위기의 대학 ① 저출산에, 코로나 19에 대학이 무너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8141700501?site=mapping_related 에서 2021. 04. 13 자료 얻음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은주, 박도형 (2020). 대학생의 학창경험이 사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활동 로그분석을 중심으로. *지능정보연구*, 26(4), 149-171.
- 정은이 (2011). 대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및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 집단 상담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3(4), 687-712.
- 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
- 최영준 (2013). 대학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변인과 변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6, 61-83.
- 최정윤, 이병식 (2009). 대학생의 학습성공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199-222.
- KESS 교육통계서비스 (2020). 간추린 교육통계 2020.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0&publSeq=3&menuSeq=0&itemCode=02&language=#> 에서 2020. 12 자료 얻음
- 탁진국, 이창호, 남승규 (1994).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551-560.
- 통계청 (2021).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conn_path=I2 에서 2019.03.28 자료 얻음.
- 통계청 (2021). 2021년 2월 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865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1.03.17 자료 얻음.
- 한국대학신문 (2020, 11, 13). 정부에 바란다! 세계 교육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대한민국. 제1377호 A23면.
- 홍효정 (2020). 프로젝트학습 경험이 대학생 핵심역량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789-816.
- Abrams, H. G., & Jernigan, L. P. (1984). Academic support services and the success of high-risk college studen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2), 261-274.
-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2011). *Student Success in Higher Education*. AFT Higher Education.
- Anaya, G., & Cole, D. G. (2001). Latina/o student achievement: Exploring the influence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s on college grad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1), 3-14.
- Arnold, K. D. (1993). *Academic achievement: A View from the Top. The Illinois Valedictorian Project*. Oak Brook, IL: North Central

- Regional Education Laboratory.
- Astin, A. W.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 Astin, A. W. (1997).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New York: Jossey-Bass.
- Atkins, M., & Ebdon, L. (2014). *National strategy for access and student success in higher education*. London: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689/bis-14-516-national-strategy-for-access-and-student-success.pdf 에서 2014, 04, 01 자료 얻음.
- Bandura, A. (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12), 1389-1391.
- Bean, J. P. (1980). Dropouts and turnover: The synthesis and test of a causal model of student attri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2(2), 155-187.
- Boulter, L. T. (2002). Self-concept as a predictor of college freshman academic adjustment. *College student journal*, 36(2).
- Brady Amoon, P., & Fuertes, J. N. (2011). Self Efficacy, Self Rated abilities,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4), 431-438.
- Christenson, S. L., Reschly, A. L., & Wylie, C. (2012). *Handbook of research on student engagement*.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Colarelli, S. M. (1991).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Characteristics and Early Job Outcomes of Accountants.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1(3), 24-46.
- Dean, A. M., & Camp, W. G. (1998). *Defining and Achieving Student Success: University Faculty and Student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New Orleans, LA.
- Deci, E. L., Ryan, R. M., Gagné,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 (2001).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well-being in the work organizations of a former eastern bloc country: A cross-cultural study of self-deter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930-942.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https://archive.org/details/ExperienceAndEducation-JohnDewey> 에서 2016.05.28 자료 얻음
- Edward B., & Melissa B. (2019). 동기과학 (신현정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7에 출판).
- Elliot, A. J., & Thrash, T. M. (2001). Achievement goals and the hierarchical model of achievement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2), 139-156.
- Elliott, K. M., & Shin, D. (2002). Student satisfacti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assessing this important concep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4(2), 197-209.
- Eubanks, D. (2021) Assessing for student success. *Intersection: A Journal at the Intersection of Assessment And Learning*, 2(2).
- Fong, C. J., Davis, C. W., Kim, Y., Kim, Y. W., Marriott, L., & Kim, S. (2017). Psychosocial factors and community college

- student succes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7(2), 388-424.
- Galyon, C. E., Blondin, C. A., Yaw, J. S., Nalls, M. L., & Williams, R. L. (2012).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class participation and exam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5(2), 233-249.
- Gurin, P., Dey, E. L., Hurtado, S., & Gurin, G. (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2(3), 330-366.
- Harper, S. R. (2005). Leading the way: Inside the experiences of high-achieving African American male students. *About Campus*, 10(1), 8-15.
- Heckert, T., & Wallis, H. (1998). Career and salary expectations of college freshmen and seniors: Are seniors more realistic than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32(3), 334-339.
- Hill, C. E. (1990). A review of exploratory in-session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8-294.
- Hill, C. H., & Knox, S.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1에 출판).
- Hirschy, A. S., Bremer, C. D., & Castellano, M. (2011).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 student success in community colleges: A conceptual model. *Community College Review*, 39(3), 296-318.
- IMD (2020). *The IMD World Talent Ranking 2020*. <https://www.imd.org/wcc/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talent-ranking-2020/> 에서 2020.12.26 자료 얻음.
- Kinzie, J. (2012). A new view of student success. In L. Schreiner, M. C. Louis, & D. D. Nelson (Eds.), *Thriving in transitions: A research-based approach to college student success*.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the First-Year Experience and Students in Transition.
- Krumrei-Mancuso, E. J., Newton, F. B., Kim, E., & Wilcox, D. (2013). Psychosocial factors predicting first-year college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3), 247-266.
- Kuh, G. D. (1993). In Their Own Words: What Students Learn Outside the Classro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0(2): 277-304.
- Kuh, G. D., Kinzie, J. L., Buckley, J. A., Bridges, B. K., & Hayek, J. C. (2006). *What matters to student succ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nces.ed.gov/npec/pdf/kuh_team_report.pdf 에서 2006.7.1 자료 얻음.
- Kuh, G. D., Kinzie, J., Cruce, T., Shoup, R., & Gonyea, R. M. (2006). Connecting the dots: Multi-faceted analys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engagement results from the NSSE, and the institutional practices and conditions that foster student success. <https://scholarworks.iu.edu/dspace/handle/2022/23684> 에서 2007.01.01 자료 얻음
- Locke, E. A. (1996). Motivation through conscious goal setting.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5(2), 117-124.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 psychology*, 9(2), 111-131.
- Mullin, C. M. (2012). Student success: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perspectives. *Community College Review*, 40(2), 126-144.
- Nora, A., Cabrera, A., Hagedorn, L. S., & Pascarella, E. (1996). Differential impacts of academic and social experiences on college-related behavioral outcomes across different ethnic and gender groups at four-year institution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7(4), 427-451.
- OECD (2019). *Trends Shaping Education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trends_edu-2019-en 에서 2019.01.21 자료 얻음.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_19991487 에서 2020.12.26 자료 얻음.
- OECD (2020). *What Students Learn Matters: Towards a 21st Century Curriculum* <https://www.oecd-ilibrary.org/sites/d86d4d9a-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d86d4d9a-en> 에서 2020.12.27 자료 얻음.
- Oja, M. (2011). Student satisfaction and student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the Community College*, 19(1), 47-53.
- Pace, C. R. (1979). *Measuring Outcomes of College: Fifty Years of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Parker, E. T., & Pascarella, E. T. (2013). Effects of diversity experiences on socially responsible leadership Over four years of college.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6(4), 219-230.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1980). Predicting freshman persistence and voluntary dropout decisions from a theoretical mode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1(1), 60-75.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Volume 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Perna, L. W., & Thomas, S. L. (2006). *A framework for reducing the college success gap and promoting success for all*. https://nces.ed.gov/npec/pdf/Perna_Thomas_Report.pdf 에서 2006.07.01 자료 얻음
- Pintrich, P. R., Conley, A. M., & Kempler, T. M. (2003). Current issues in achievement goal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4-5), 319-337.
- Plant, E. A., Ericsson, K. A., Hill, L., & Asberg, K. (2005). Why study time does not predict grade point average across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of deliberate practice for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0(1), 96-116.
- Pritchard, M. E., & Wilson, G. S. (2003). Using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to predict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1), 18-28.
- Rendon, L. I. (1995). *Facilitating Retention and Transfer for First Generation Students in Community Colleges*. Paper presented at the New Mexico Institute: Rural Community College Initiative, Española, NM.
- Robbins, S. B., Lauver, K., Le, H., Davis, D., Langley, R., & Carlstrom, A. (2004). Do

- psychosocial and study skill factors predict college outcom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0(2), 261.
- Roberts, J. E., Kassel, J. D., & Gotlib, I. H. (1995).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2), 217-224.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amans, R., Zahidi, S., & Keveloh, K. (2015). *Disrupting unemployment: Business-led solutions for action*.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http://reports.weforum.org/disrupting-unemployment/> 에서 2015.04.01 자료 얻음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밤의 제4차 산업 혁명* (송경진 역). 서울: 메가스터디북스. (원전은 2016년에 출간)
- Sedikides, C., & Hepper, E. G. (2009). Self improvement.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6), 899-917.
- Sheldon, K. M., & Elliot, A. J. (1999). Goal striving, need satisfaction, and longitudinal well-being: the self-concorda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482.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In C. E. Hill (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3).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 - 322.
- Times Higher Education magazine (n.d.).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1*.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1/world-ranking#!/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stats 에서 2021 자료 얻음
- Tinto, V. (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2nd E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mbach, P. D., & Wawrzynski, M. R. (2005). Faculty do matter: The role of college faculty in student learning and engage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6(2), 153-184.
- Uusiautti, S. (2013). On the positive connection between success and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Psychology*, 3(1).
- Venezia, A., Callan, P. M., Finney, J. E., Kirst, M. W., & Usdan, M. D. (2005). *The Governance Divide: A Report on a Four-State Study on Improving College Readiness and Success*. <https://web.stanford.edu/group/siher/> 에서 2005.09.01 자료 얻음.
- Weatherton, M., & Schussler, E. E. (2021). Success for All? A Call to Re-examine How Student Success Is Defined in Higher Education. *CBE: Life Sciences Education*, 20(1), es3.
- Whiteley, S. (2016). *Creating a coherent performanc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higher education student lifecycle in Australia. Positioning higher*

- education institutions*, 141-160. Leiden: Brill Sense.
- Wirth, R. M., & Padilla, R. V. (2008). College student success: A qualitative modeling approach.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2(9), 688-711.
- Wood, L. N., & Breyer, Y. A. (2017). *Success in higher education*. In *Success in higher education*. Singapore: Springer.
- Yaworski, J., Weber, R. M., & Ibrahim, N. (2000). What makes students succeed or fail?: The voices of development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30(2), 195-221.
- Yazedjian, A., Toews, M. L., Sevin, T., & Purswell, K. E. (2008). "It's a Whole New World":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s' Definitions of and Strategies for College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9(2), 141-154.
- Yen, C. J., & Liu, S. (2009). Learner autonomy as a predictor of course success and final grades in community college online course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41(3), 347-367.
- York, T. T., Gibson, C., & Rankin, S. (2015). Defining and measuring academic succes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20(1), 5.

1차 원고접수: 2021. 04. 12

2차 원고접수: 2021. 05. 13

최종 게재결정: 2021. 06. 1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SoHyeong Ryu

Jinkook Tak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listen to students' free thoughts, an ope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using an online questionnaire and 99 responses were analyzed. The respons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QR-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25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ree domains. The first domain, 'meaning of student success'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s with 9 categories: 'academic achievement', 'job competency improvement', 'gaining diverse experiences', 'satisfactory employment', 'setting of desired career path', 'relationship-building ability improvement', 'setting and achievement of own goals', 'self-development', and 'satisfactory college life'. The second domain, 'college environmental factors for student success' is with 7 categories: 'career development support', 'job competency improvement system',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college life', 'opportunities to form human networks', 'learning capability enhancement system', 'expansion of economic support', and 'environment for student convenience'. The third domain, 'psychological factors necessary for student success' is with 9 categories: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awareness and improvement', 'job competency', 'self-regulation ability', 'rich experience', 'career awareness', and 'self-esteem'. The frequency and results of each domain were analyzed and presen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subsequent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student success, college student, CQR-M, exploratory study